“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feat. 멘탈관리)

하형직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51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유예로 합격한 하형직 입니다. 저는90년생이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이 학습능력이 안 좋은 사람들도 붙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평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처음에는 그저 많은 다른 경영과 학생들과 같이 안정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직은 하고 싶은데 사시는 폐지되고 행시는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무섭고 그나마 경영학과 과목과 연관되어서 실패해도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3.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

2011년 겨울 ~ 2013겨울

10학번으로 입학해서 11년 2월에 군대에 갔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기 전까지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 처음으로 계산기를 사고 최창규선생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군대에 가서 복습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강의만 다 듣고 복습하지는 않고 입대하였습니다. PMP 반입이 가능한 부대를 가서 휴식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PMP로 수강하고 복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대 내에서 중급회계, 경제학,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를 완강하고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봄 ~ 2014년 여름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2013년 전체, 2014년 1학기 까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친구의 꾐에 빠져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그 게임에 빠져들어서 공부를 소홀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복학 후에 20학점씩 들어서 학교수업도 빠듯하여서 1년 반 동안 추가로 수강한 강의는 고급회계뿐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방학 때에는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시반 사람들은 전부 연습서에 책을 산처럼 쌓아놓고 공부하는데 전 객관식은 커녕 기본서도 못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두려워서 3일만에 고시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지만 거의 점심때쯤 학교에 와서 저녁때쯤 집에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4년 1차시험 응시입니다. 세법, 상법, 경영학 등은 아예 책을 구매해본 적이 없고 다른 과목들도 복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응시를 망설였지만 그래도 시험장 분위기나 시험방식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14년 1차시험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세법 상법 과목은 30점대로 과락에 총 230점 정도 받았지만 이 때 시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 ~ 2015년 봄

15년 시험은 본격적으로 응시할 생각에 14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2학기는 휴학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원에 다닐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시 고시반에 들어가거나 도서관에서 인강으로 독학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에 가고서는 몇 시간 공부 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게임 한 판이 끝난 후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을기본종합반을 접수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접수 후 일주일쯤 뒤에 가을반이 개강하여서 그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에 다닌 후에는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 거리인데 7시쯤 일어나서 8시 50분까지 학원에 오고 그날 배운 것은 꼭 복습하고 가고 모의고사도 꼬박꼬박 응시했었습니다. 주말은 일요일에는 공부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하고 싶을 때는 쉬었습니다. 생활 패턴이 안정되니 이 시기에 실력이 부쩍 향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본종합반이 12월에 종강하였는데 그 후 곧바로 객관식 연계반을 단과형식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 15년 1차시험에 응시하여 1300등으로 붙었습니다.

2015년 봄 ~ 2015년 여름

시험 점수가 아슬아슬해서 붙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복학을 하였습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손에 놓고 있다가 복학 후 3주쯤뒤에 합격사실을 알고 그 때부터 휴학 후 2차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차종합반에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판단하여 인터넷 강의로 5과목을 다 준비하였고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회계감사과목만 합격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아깝지도 않게 4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가을~2016년 여름

우선 4유예라는 시험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1차를 다시 볼 생각을 하였습니다. 15년 2학기를 복학함과 동시에 새롭게 기본부터 공부하였습니다. 12학점을 들었고 기말고사 전까지는 2차 공부를 하였고 기말고사를 본 후 12월 말부터 경제, 경영, 상법책을 다시 펴서 공부하였고 16년 1차시험을 여유 있게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휴학을 하고 다시 2차 4과목을 준비하였고 답안지 작성하는 법부터 새로 익히고 2차시험을 치게 되었고, 16년에 유예로 합격하였습니다.

4. 학습방법 및 합격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

(1)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자

사실 학습방법 면에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잘 되는 공부 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부하면서 한 번도 계획을 세워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과목이 부족한 것 같으니 이 과목을 봐야지 싶으면 그 과목을 공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조별모임과제가 있는 과목이 있으면 바로 빼버릴 정도로 여럿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 주변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그룹 스터디도 해서 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의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실강으로 듣는 것이 나은지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는 것이 나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무작정 따라 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의 합격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한번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사 시험에서 특히 1차시험의 시험범위는 국내에 있는 모든 시험을 통틀어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공부량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 시험시간에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과목이 말도 안되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차시험의 합격 점수는 대략적으로 평균 70점내외면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실제 시험시간에 풀 시간이 없고 설사 풀었더라도 그 문제를 푸느라 다른 쉬운 문제들을 놓치게 된다면?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예 버릴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공부한다면 머리에 저장하기에도 수월하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성적도 오히려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나? 이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제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회계시험 역사상 한 두 번 나왔거나 4~5년주기로 기출 됐던 파트들 (ex세법: 연결납세제도, 재무관리: VAR 등등)**

**본인이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가고 나오면 무조건 틀릴 것 같은 부분(ex 경제: 솔로우모형 -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10번도 넘게 봤지만 정상상태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맨날 틀려서 손 놨습니다. 세법2차: 약술형 문제 – 공부량은 많은데 공부해도 실제 시험에는 너무 어려운 사례가 나와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오지만 당장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ex: 세법: 양도소득세, 증여세) –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면 투입대비 산출이 극히 낮은 부분이어서 일단 버리고 시간이 나면 나중에 공부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열거한 기준이나 예시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70점만 맞으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부분을 안고 가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범위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가르치시지만 배우는 학생들은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분을 버린다고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평범한 90프로의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공부한 부분만 풀어도 시험시간이 모자란 현실에 굳이 잘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까지 공부해서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는 하기 싫어지고 성적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자신이 버린 부분이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 안 한 부분이 나왔다면 웃으면서 시간 아낄 수 있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 푸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 남들과 비교 하지 말고 귀 닫고 살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6개월 준비하고 1차붙었다느니 누구누구는 휴학도안하고 동차로 합격했다느니. 시험일자가 다가오면 누구는 전과목 10회독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객관식 책을 전수로 다 풀었다는 소리도 들리는 등 나의 멘탈을 흔드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천재이거나 과장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똑똑한 몇몇의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험은 쉽게 생각해서 매년 900등 안에 들기만 하면 다 똑 같은 회계사입니다. 괜히 특수한 사례들 때문에 멘탈 관리에 실패하지 마시고 귀를 닫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버릴 건 버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 마음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결과는 뒤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9천명 응시에 1700명 합격입니다. 5:1이지만 허수를 제외하면 4:1정도 될 것입니다. 2차 시험은 2700명 응시에 900명 합격입니다. 내 옆 사람과 그 옆 사람보다 잘 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